

# 세계화를 향한 우리의 선택

吳 定 圭\*

## 1. 世界經濟環境 變化의 시사점

賦存資源이 빈약하고 國土도 좁은 우리나라가 가진 것이라고는 우수한 人的資源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人的資源을 잘 활용하고 또 우리 국민 모두의 所得水準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宿命的으로 나라밖으로 눈을 돌려야 할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世界속에서 우리의 살길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밖에 나가서 남과 競爭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세계적인 經濟超強大國도, 軍事超強大國도 아닌 中小規模의 나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國際經濟秩序나 國際規範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을 우리가 主導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즉,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國際規範과 競爭의 틀속에서 競爭해서 이겨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多者間貿易協商過程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UR은 간단히 말해서 GATT 117개 會員國들이 모여서 國際貿易에 관한 새로운 國際競爭秩序를 짜는 多者間協商이었다. 그런데 이 終結過程을 지켜

보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가? 117개국간의 協商이 아니라, 競爭力을 기초로 한 協商力이 강한 미국과 EU(유럽연합)간의 協商인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美國과 EU만 설득시키면 協商이 끝나는 것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었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힘센 나라들의 주장에 따라 쌀을 포함한 모든 農產物도 예외없이 일정기간 이후에는 모두 개방하고, 또 정부보조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는 남들, 특히 힘센 나라들이 만들어놓은 '경쟁의 틀'속에서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世界經濟環境과 國際秩序變化를 항상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고, 또는 그러한 변화를 미리 豫測해서 적절히 대응할 줄 아는 남다른 知慧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政府 政策當局과 企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국민 모두가 國際的인 眼目을 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우기 오늘날 世界는 激變하고 있다. 이 격변하는 世界環境속에서 우리 경제의 先進化를 이룩해야만 하기 때문에 世界環境變化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 財政經濟院 豫算室 書記官

## 2. 격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우선 오늘날 세계경제환경은 크게 보아 두가지 측면에서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첫번째의 변화는 단기 내지 중기적 측면에서 기존 세계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고, 두번째의 변화는 과거 르네상스나 産業革命에 버금가는 정도의 세계경제발전사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은 장기적인 대변혁과 관련되는 것이다.

기존의 세계경제질서를 격변하게 하는 배후에는 다음 세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제2차대전 이후부터 지속되어 오던 동서 양진영간 冷戰의 終熄을 들 수 있다. 두번째 요소는, 세계 제2차대전 이후 世界經濟를 주도해 오던 英國經濟의 상대적인 弱화이다. 세번째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광섬유, 광케이블, 人工衛星 通信技術과 컴퓨터 및 情報處理技術의 눈부신 발달이다.

과거 冷戰體制下에서는 安保나 理念이 國際關係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을 뿐 아니라, 國際關係에 있어서 友邦 혹은 血盟이라는 概念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冷戰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國家間的 經濟的인 利害關係가 國際關係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 모든 나라는 經濟第一主義를 채택하고 經濟에 우선순위를 두는 國家經營體制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經濟優先主義는 결국 우리의 국제경쟁여건을 그만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世系經濟를 주도해 오던 美國經濟는 越南戰 이후 상대적으로 弱化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위 쌍둥이 赤字, 즉 대규모 財政赤字와 貿易赤字에 허덕이게 되었고, 많은 構造的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

다. 그 결과, 世界經濟를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世界經濟는 미국이 남겨놓은 指導力의 공백을 메꿔줄 나라가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다. 世界經濟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상황은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첫째, 世界經濟의 多極化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國家間 經濟的 利害關係에 따라 끼리끼리 모이는 地域主義(Regionalism) 혹은 Bloc化가 성행하게 될 공산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NAFTA(北美自由貿易協定)의 발효, 유럽공동체(EC)의 유럽연합(EU)으로의 탈바꿈, APEC(亞·太經濟協力體)의 활성화 등도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세계경제를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세계는 經濟力이 상대적으로 큰 몇몇 나라들이 협조해서 끌고 가는 집단지도력(Collective leadership)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도력의 발휘에는 여러가지 비용과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제2차대전 이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상당 기간동안 美國은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敗戰國의 經濟再建을 위한 대대적인 援助計劃도 마련했을 뿐 아니라, 國際通貨基金(IMF), 世界銀行(WB) 그리고 GATT의 창설을 주도해서 世界經濟의 繁榮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自國市場을 넓게 開放해서 많은 나라의 對美輸出을 크게 늘릴 수 있는 機會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이 상당한 비용과 부담이 따르는 이와같은 指導力을 발휘한 데에도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었다.

冷戰體制下에서 채택된 공산주의화 확산

방지와 미국경제의 방대한 산업·군수생산능력의 가동이라는 美國 國益에 크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美國經濟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經濟力이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이런 일들을 共同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르는 비용분담문제로 摩擦의 소지 또한 커졌다. 그런데 이 비용분담을 지난번 걸프戰 때처럼 現金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市場開放이다.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繁榮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뜻에서도 상대적으로 經濟力이 큰 나라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市場開放壓力은 있게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經濟力이 있는 나라로는 소위 G-7을 들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新興工業國들이 G-7 다음으로 經濟力이 있는 나라로 꼽히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외부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市場開放壓力도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世界經濟環境을 격변하게 하는 세번째 요소로 電子·通信技術과 컴퓨터 및 情報處理技術의 눈부신 발달을 들었는데 이러한 소위 情報化 관련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은 이제 地球를 하나의 조그마한 마을, 즉 地球村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企業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企業의 立地가 地利上의 거리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企業하기 유리한 곳이면 資本과 技術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었다. 게다가 冷戰體制가 무너지고, 오랫동안 존속해온 인위적인 장벽이 제거된 결과, 12억 인구를 가진 中國과 6억에 가까운 舊蘇聯과 東歐圈 여러 나라도 世界的 企業의 입지대상이 된 것이다.

이제 企業하기 유리한 곳이면 어디든지 資本과 技術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를

두고 흔히 국경없는 經濟(Borderless economy) 시대라고들 한다. 本社は A나라에 두고, 製品은 B나라에서 만들어서 最終製品 제조는 C나라에서, 그리고 販賣는 세계 전체를 상대로 하는 企業經營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經濟第一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이러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자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變化가 示唆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企業競爭與件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情報를 갖고 있고, 또한 情報를 활용할 줄 아는 기업들은 기업하기 유리한 요소가 있는 곳은 다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競爭이 그만큼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열해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世界的 企業들은 각종 經營革新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世界的 企業들은 Buginess reengineering, Benchmarking 등 企業經營 능률화를 위한 각종 經營制度의 革新과 대대적인 人力減縮 計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유럽제국과 미국의 높은 失業率도 이러한 경영혁신 노력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終身雇用으로 유명한 日本企業들마저 名譽退職 등의 명분으로 특히 中間管理層 人력을 크게 감축하는 방법을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치열해진 기업간 경쟁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世界的 企業間에 맺어지는 각종 戰略的 提携(Strategic alliances)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競爭社로 서로 경원시하던 기업들이 新製品의 共同開發이나 共同販賣 網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企業間 合併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작년에 이룩된 UR 多者間貿易 協商的 終結도 企業競爭環境을 크게 변화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UR 協商終結을 기업입장에서 보면, 이제부터 政府的 保護幕이나 支援을 기대할 수 없는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간 無限競爭時代를 맞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GATT 체제는 정부간의 協約을 執行, 監督 또는 調整하는 常設機構가 없었는데, 이번 UR 終結로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맡게 될 WTO(世界貿易機構)의 創設基盤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WTO시대의 多者間協約은 더욱 철저히 집행되고 조정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소위 새로운 이슈들로 불리우는 環境, 勤勞條件, 競爭政策 등 이제까지 고유한 國內政策이라고 여겨지던 분야까지도 國際規範과 國際協約에 따라야 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3. 우리의 선택

우선 政府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먼저 아직도 우리 모두의 의식구조 속에 남아 있는 閉鎖性과 排他性을 타파할 수 있는 意識構造改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世代를 위한 國民教育의 內容과 敎科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나, 既成世代의 國際的 眼目과 識見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弘報와 敎育도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無限競爭時代에 대비한 國家競爭力提高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政府部門 스스로의 生産性向上을 위한 行政, 立法, 司法府의 比能率部門을 제거하는 制度와 慣行의 改善計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競爭相對가 될 오늘날의 선진제국이 能率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혁과 변화의 무풍지대가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다. 신축성과 적응력부족은 곧 자기파괴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세째, 기업에 대한 필요 이상의 規制나 干涉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이들은 과감히 제거되어야 한다. 無限競爭時代에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우리 기업을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묶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네째, UR의 後續措置로서 法과 制度 및 行政慣行을 國際規範에 맞게 고쳐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農業과 서비스 등 새로운 부문의 개방에 대한 產業構造調整과 競爭力強化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UR이후 WTO 體制下에서의 다음 라운드에 대비한 준비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특히 環境部門에서 필요한 制度整備와 中長期 投資計劃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世界舞臺에서 우리의 입지를 조금이라도 강화하고,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世界經濟環境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國際機構나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기관에 젊고 유능한 公職者들의 派遣勤務와 研修를 적극 권장하고, 이를 制度化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앞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地域主義 추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戰略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와 같이 協商力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의 경우 多者主義가 最善이기는 하나, 地域主義 추세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추세를 잘 활용할 줄 아는 知慧를 길러야 하는 것이다. 물론, 企業이 해야 할 일은 더 많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기업도 企業經營의 世界化 추세를 외면하고서는 오늘날의 無限競爭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

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國際的인 眼目을 갖고 國外의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國內에서 國內外企業을 막론하고 다른 기업과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와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 기업들보다 훨씬 더 競爭力있는 世界的 企業들이 經營視野를 世界化하고, 나아가 다른 競爭力있는 世界的 企業들과 각종 戰略的 제휴를 꺼리지 않는 상황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추세를 외면하고서는 이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위한 새로운 先進技術이 필요한데, 先進技術들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과 손잡고 일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世界的 企業들과 손잡고 일할 수 있으려면 우리 기업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世界的 企業들이 하필 우리 기업들과 손잡으려 하겠는가.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들 世界的 企業이 필요로 하는 生産技術이든, 競營技法이든 관계 없이 世界一流技術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企業內에 國際的 眼目과 識見을 갖춘 地域專門家와 國際經營人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健全하고 生産的인 勞使關係風土를 조성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하기에 불편하거나 골치 아픈 나라에 구태여 世界的 企業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 國民 모두가 해야 할 일 또한 많다. 우선 우리 국민 모두는 世界化時代에 살며 세계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만 되는 우리의 처지를 깊이 認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外國人에 대한 막연한 被害意識과 敗北主義, 그리고 지나친 排他性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세계와 바깥 세상을 우선 알아야 하고 外國과 外國人, 그리고 外國企業과도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정보화시대로 이행해 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과거의 資源이나 資本이 아닌 情報를 활용할 줄 아는 知識이 중요하며 사람이 만든 比較優位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 대비해서 知識을 길러내고 창의력을 함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초·중·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혁은 물론이려니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육부문에의 막대한 투자를 위한 民資의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마련되어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우리 국민 모두의 일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勤勞者들의 平生敎育과 再訓練을 위한 制度의 마련은 물론이며, 科學, 技術開發에 더욱 많은 資源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더해야 하나, 技術의 産業應用과 新技術의 産業化에 중점을 두는 科學技術開發投資를 과감히 늘려나가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외국인 直接投資 내지 合作投資를 통한 외국기업과의 技術協力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남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은 情報化時代에 대비한 情報通信網의 擴充과 情報關聯産業 내지 知識産業 育成基盤이 되는 制度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